

국교생 학대 치사사건

학부모들이 진상규명 촉구 나서

주민들, 아버지·계모의 '계획된 살인' 주장

학대 끝에 딸을 죽게 했던 친아버지가 구속되고 계모까지 공모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망한 어린이가 다니던 학교의 학부모들과 이웃주민들이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부분 어머니들로 구성된 이들은 사망한 홍지민 양(9. 반포국교 4년)의 아버지 홍길수 씨(41. 치과의사)가 상해치사혐의로 구속된 지난 14일 이후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17일 수사를 맡은 경찰청이 홍길수 씨와 계모 정순덕 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치사혐의로 구속하기는 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홍 씨가 "딸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 순간적으로 때렸다"며 치사임을 주장했고, 자신의

들을 중심으로 한 구명운동까지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지민 양의 사망원인은 복부를 발로

성행위를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혼내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과정을 통해 이들 남매의 성행위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부부가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재혼한 뒤부터 남매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들 부부는 어린 자녀에게 도벽과 성행위를 했다는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해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남매를 기도원과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다. 지민 양 친구의 어머니인 김인숙 씨는 "두 남매 모두 착하고 똑똑했는데 아버지가

재혼 후 남매 굶기고 폭행 멍들러 학교오기 일쑤 구속 후 검찰 친구 통해 축소수사 압력 가하기도

친구인 검찰관계자를 통해 경찰청에 축소수사 압력을 가하는 등 진상을 왜곡시키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동료의사

채이고 전깃줄로 전신을 때려 장간막 파열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구속 당시 폭행 이유를 "지민 양이 국교 6학년생인 오빠와

있고 말수가 적어졌다"고 말했다. 급식 시간에는 식판을 2~3개씩 놓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아 굶기는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망소식을 듣고는 많은 학부모들이 진작 아이들을 보호할 걸 하는 죄책감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김 씨는 지민 양의 죽음이 축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 기자〉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 씨 10년 구형

변호인단 "정당방위" 주장



20여년간 폭력을 건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 씨의 현장검증 장면. (사진제공·문화일보)

이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의 살인 행위가 긴급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범이나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재판부는 참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심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와 신경과민, 기억력 저하, 공포 등 정신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지난 1월 16일 폭력남편을 살해하고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6월 14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남편을 살해해 가족공동체를 파괴한 이 피고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순심 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너무 무서워 엄청난 죄를 지었다"며 말끝을 맺지 못하고 흐느꼈다.

한편 이 사건을 지켜본 방청인단은 검사의 구형이 20여년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상참작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구형에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오는 28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